판결·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

학교폭력 뒤에도 매일 마주칠까, 가해학생 전학과 접촉금지로.

가해학생 전학·접촉금지 조치

조치 변경

학교폭력 전학 조치 · 행정심판 재결

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
재 결 서

해율)

⑧주 문 처분을 『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, 전학』으로 변경하여

2020. 11. 30.

의뢰인이 마주한 문제

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 기존 가해학생 조치를 바꿔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칠 수 있다면 처분의 내용만큼 실제 생활에서의 보호가 중요합니다.

학교의 조치는 학생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. 기존 조치와 이번에 새로 요구한 내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.

해결의 핵심

기존 조치가 학생을 충분히 지키는지, 더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.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

학교폭력 뒤에도 매일 마주칠까

가해학생 전학·접촉금지 조치.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.

- 학교폭력 뒤에도 가해학생과 마주쳐야 한다면
- 출석정지만으로 아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면
- 가해학생 전학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

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.
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.

해율이 함께한 결과

법무법인 해율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했습니다.

이 사건의 결과는 가해학생 전학·접촉금지 조치입니다.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,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

의뢰인에게 달라진 점

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 전학과 접촉금지 조치가 정해졌습니다.

퇴학 요구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,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된 결과입니다. 기존 조치와 새로 인정된 보호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.

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.

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.

가해학생 전학·접촉금지 조치.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.

- 접촉과 보복이 걱정돼 보호 조치를 원한다면
- 피해학생을 위한 기존 조치가 부족하다면
- 학교폭력 조치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면

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.
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.